

월요광장



김형중
조선대 교수·문학평론가

방학 시작과 더불어 짝이 좀 나자 ‘프로이트 로봇’ (리디아 H. 리우)이란 책을 집어 들었다. ‘AI 시대의 정신분석학’이란 말로 요약하면 좋을 책이다. 그 책을 집어든 것이 우연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밀린 숙제 같 았을까? 수식 년, 인문학이 최고라고 믿고(실은 우기 며) 살아온 터라 이 방면에 완벽한 무지 상태를 고집스 레(실은 두렵게) 유지해 왔지만, 몇 해 전부터 어떤 압 력 같은 건 느끼고 있었다.

인공지능이 수많은 글을 대필해 주는 시대, 그런데 나는 읽고 쓰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 얼마 전 기말 시험 채점 중에는 표절률은 0%인데 인공지능 활용률 은 85%인 리포트도 봤다. 그랬으니 기계와 다른 고유 한 인간성이 어땠고 알고리즘으로는 흉내내지 못할 창 의력이 어땠고 하는 오래된 평계로, 좁디좁은 책의 성 벽 속에서 더는 버티기 힘들다는 걸 내 무의식은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게다가 최근 연세대 비대면 시험 사태 소식도 전해

나는 대필 필자입니다

들었고, 신문문예나 잡지 문예 공모에 ‘생성형 AI 사용 금지’ 항목을 넣을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모습 도 지켜봐 왔던 터다. 그래서였을까? 꿈도 꾸었다. 모 일간지 신문에 문학생론 분야 심사를 앞둔 며칠 전 쯤 꿈이었는데, 아뵐까! 내가 뽑은 당선작이 AI의 작 품이란단다.

게으른 터라 프로이트 로봇은 아직 다 읽지 못했다. 게다가 애초 예상과 달리 요즘 흔한 인공지능 관련 교 양서를 훌쩍 뛰어넘는 전문적인 수준이어서 이 짧은 지 면에 그 내용을 요약할 계재도 아닌 듯하다. 다행이라 면, 아직 초보지만 내가 최근 구글 인공지능 사용법을 터득했다는 점이다. ‘그래! 나도 때면 이렇게 광궁거리 지 말고 글 좀 손쉽게 써보자!’ 눈 딱 감고 구글 인공지 능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인공지능과 인간의 무의식 이란 주제로 사실 한 편 써줘”. 몇 초 걸리지 않아 글 한 편이 창에 뿔다. 놀라웠다. 여기 그 결과물의 앞부분을 먼저 옮겨 본다.

“오늘날 AI는 점점 집사기의 그물을 유유히 빠져나가 며 정교한 문장을 생성해낸다. 이는 단순한 기계적 모사 가 아니다. AI는 인류가 남긴 방대한 텍스트 속에 잠재 된 패턴, 즉 인간이 의식하지 못한 채 사용해온 언어적 습관과 편향된 상징체계에 ‘문화적 무의식’을 학습한 결 과다. 지크문트 프로이트가 꿈을 통해 개인의 무의식을 탐색했다면, 현대인은 AI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인공 꿈 통의 무의식적 데이터와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표절률 0%, 그러나 인공지능 활용률 85%의 그 리포 트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이제 알겠다. ‘표절’과 ‘대 필’의 차이가 명료하게 이해된다. 게다가 저 녀석은 스 스스로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마저 고백하는데, AI가 활용하는 그 방대한 데이터들이 편향된 언어적 관습과 상징체계에 의해 감염되어 있음을 경고한다.

그리고는 마치 프레드릭 제임슨(‘정치적 무의식’)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쓸쩍 암시하듯 ‘문화적 무의식’이란 표현을 아주 자연스럽게 사용하기까지 한다. 프 로이트의 ‘무의식’과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를 AI의 알고리즘과 유비시키는 논리 전개도 탁월하다. 이제 고백한다. 사실 저 문장들의 내용은 이번 지면에 내가 쓰려던 바 그대로다. 아니나 다를까, AI는 글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결국 AI 시대의 비평과 창작은 ‘문장의 일치도’라는 수치적 논의를 넘어선 곳에 있어야 한다. AI가 인간의 무의식을 데이터로 환원해 보여준다면, 인간은 그 데 이터의 틈새에서 ‘이데올로기적 균열’을 발견하는 역 사가이자 비평가가 되어야 한다. 단순한 ‘활용’을 넘어 AI가 건드리는 인간의 무의식적 편향을 비판적으로 읽 어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미 학적 투쟁이다.”

그렇게 말이다. 인문학자랍시고 평생 알튀세르와 프 로이트와 벤야민과 제임슨을 읽어 온 내가, 오늘은 고작 대필 필자가 되어 하고 싶었던 주장이 바로 이것이다.

수필의 향기



정선
시인

잡곡밥 만 공기, 두부 된장국, 들기름에 무친 시금치 와 콩나물, 맨 파래김, 브로콜리와 파프리카 몇 조각, 호두와 블루베리와 바솔모마토 몇 알, 두유 반 컵.

새해 들어 비건을 시도한 첫 식사다. 문우가 떠낸 ‘오 늘부터 채식주의’의 영향이 컸다. “내가 먹는 한 끼가 세상을 바꾼다!” 저자는 간절하게 외쳤고, ‘피타고라스 부터 호아킨 피닉스, 폴 메카트니까지 한 목소리로 말 하는 공존과 생명에 관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요기 이자 15년 넘게 비건으로 살아온 그녀의 식탁 철학에 박수를 보냈다.

저자는 육식의 폐해와 비판보다는 비건으로 사는 즐거움과 한 끼라도 비건을 실천한다면 선한 영향력이 있 음을 말했다. 불안과 부정적인 마음이 줄어들고 감사 하는 마음이 자리한다는, 강요가 아닌 ‘다정한 권유’여 서 나는 마음의 부담을 덜었다. 원래 육류 양이 적고 채 소와 과일을 좋아하니까 나 하나만이라도 보탬이 된다 면야 하는 심정이었다. 첫 식단 사진을 가족 단체방에 올렸더니 엄마는 저혈압에 허약 체질인 데다 고기까지 안 먹으면 쓰러진다 피골이 상접하겠다며 딸과 남편이 격정했다.

기 고



문석환
광주교통공사 사장

광주·전남 행정 대통합이 점점 실감 나는 현실로 다 가고 있는 요즘이다. 대한민국은 인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화의 한계에 직 면한 상황이다. 과거 경제 제일주의를 표방했던 산업 화 시대에는 중앙 정부와 수도권 중심의 국정 운영이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었다.

그러나 민주화 이후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산업 구조의 전환, 인구 문제와 지역 소멸 등 여러 사회 구조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작금의 현실은 이제 수도권 중심의 일 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극 체제’에 기반한 국토 균형발 전을 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시대의 소명에 답 하기 위해 행정부 주도의 ‘5극 3특 초광역권 조성’이라 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시대에 대한 정확 한 문제 인식과 중앙 정부의 정책 의지가 톱나바퀴처럼 맞물린 것이다.

사실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1990년대부터 정치권 에서 세 차례나 논의와 무산을 반복하는 동안 충청권의 ‘대전·충남 행정 통합’ 등이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호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논의

세상을 향하는 작은 발걸음

아차차! 영화를 한 편 보려다가 무심결에 먹다 남은 카패라떼를 한 모금 마시고 말았다. 습관이란 이렇게 무섭다. 그렇다고 예서 말 수는 없다. 점심은 양지 대신 표고버섯 가루와 들깨가루를 넣은 떡국, 저녁은 나물 과 국으로 간단히 때웠다. 두 살짜리 손녀를 돌봐야 하 는 이틀째 아침도 들깨 떡국, 점심은 남은 나물로 비빔 밥, 점점 뿔었다. 급기야 저녁때는 손녀 나물을 소고기를 굽다가 기름 부분을 도려내고 냐름 집어먹었다. 한순 간에 비건 첫 도전이 다섯 끼에 그쳤다.

책 속에서 알게 된 피타고라스, 그는 “살아 있는 생물이 다른 살아 있는 생물의 죽음으로 인해 살아야 한다 는 것이 얼마나 기괴한 죄악인가”라며 인간의 탐욕스 러움을 언급했다. 이미 기원전 6세기경에 피타고라스 는 제단에 바치는 소 대신 밀가루와 꿀로 만든 소 모양 의 케이크를 만들어 채식을 실천했다니 생명을 귀히 여 기는 그에게 경외감이 생겼다.

자연의 질서라지만 최상위 포식자들의 사냥 광경은 잔인하다. 나도 도축의 다큐멘터리를 보면 고흐처럼 육식을 피하게 될 것 같다. 최근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스물다섯, 스물하나’ 노래로 한우 광고에 출연한 것을 보고 눈살이 찌푸려졌다. 왼손에 든 한우 살코기 팩을 클로즈업시키고 “한우- 너의 향기가 바람에 실려 오 네”라고 노래하면 소가 음매- 얼굴을 크게 내밀었다. 이 좋은 음악이 영상과 어울리지 않아 다소 실망스럽고 아쉬웠다. 나는 소고기를 좋아하지만 소의 우는 모습이 계속 떠올라 마음이 불편했다.

비건이 되려면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다. 식탐이 많 지 않은 나도 고기보다는 해산물을 못 먹는다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 물치항의 쫄깃쫄깃한 자연산 회와 공 평항에서 먹은 주꾸미 샤브샤브와 소래포구 새조개의 들르난 맛을 내 허가 기억하는데 포기할 수 있을까.

다시 비건 식탁을 흥내 냈다. 젓갈을 넣은 김장 김치 를 못 먹으니 다시마 육수와 단 양파로 작꾸미를 담갔 다. 아요 나갈 땀달걀 대신 두부부침을 넣은 김밥을 쟁 겼다. 삼 일을 나물과 해초, 들깨통밀수제미, 샐러드와 과일, 두유, 견과류 등을 번갈아 가며 먹었다. 육식파 에게는 빈한한 식탁이다.

저녁때 소고기에 와인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는 몸이 무겁다. 과식으로 입 안이 텅텅하고 고린내가 난다. 최 에 기호식품인 와인은 포도로 만들지만 정제과정에서 생선 부레나 우유 단백질 등을 사용한다. 그래도 간간 이 비건을 실천하면 몸에 불순물이 덜 쌓여서 뇌가 맑 아지고, 쓸데없는 생각들이 사라져 숙면할 수 있을 듯 하다.

비건의 한 끼가 지구 환경을 살린다고 한다. “축산업 이 방출하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1%에 육 박” 한다니. 또한 소고기 1kg 생산에 1만5000리터의 물이 필요하지만 채소는 300리터로 물 절약 효과가 크 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건 한 끼는 개인의 탄소 발 자국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며 실천이 완벽하지 않 아도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하늘도 숲도 바다도 노력 없이 무한히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명과 공존의 메시지’가 가슴 에 와 닿아 변화하라고 발명동 치는 이 작은 날갯짓이 헛되지 않고 이어지기를……. 참 좋은 식단이란? 오늘 하루 당신의 식탁은 어떠한가요?

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 60분 생활권 완성

는 분명히 늦은 감이 있다.

다행히 지난 2일 양 사·도의 행정 통합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이후 광주시는 ‘행정 통합 추진 기획단’을 출범시켰고 국회의 입법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행정 통합과 지방분권’이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임을 증명하는 것이자 광주와 전남이 과거의 실패를 딛고 그 어느 지자체보다도 진심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대의에 전력을 다해 동참하고 있다는 것으로 두 팔 벌려 환영 할 일이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효과는 분명하다. 공공서 비스 효율화와 행정비용 절감과 같은 표면적인 이점 은 차치하고서라도 광주의 인공지능(AI) 산업과 첨 단 모빌리티 산업, 전남의 항공우주 산업과 신재생에 너지 산업 등 이제 막 날개를 달고 있는 양 사·도의 핵심 산업이 중앙 정부의 막대한 재정 지원과 폭넓은 권 한 이양에 힘입어 ‘지방이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신성 장 견인 모델’로 당당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 생각한 다.

그뿐만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산업 생태 계 활성화, 문화·관광 대표 브랜드 구축, 통합 복지 서 비스 일원화에 이르기까지 양 사·도의 행정 통합은 경 제, 문화, 사회 전반에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며 지방 거점 균형 성장을 위한 자양분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행정 통합을 통한 국가 역량 고도화를 논함에 있어 교통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인구 320만 규모의 호남권 경제 거점은 그 자체로 생활권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대중교통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현재

본격 제정을 준비 중인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사업 특례’를 통해 광역교통 시설 및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국고 지원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중앙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은 광역 교통 네트워크 구축은 지역민 이동과 생활 편의를 크게 개선함은 물론 나아가 60분 생활권의 완성을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광주 대중교통의 컨트롤타워인 광주교통공사 역시 광역교통 정책의 실행 주체로서 그동안 살아온 운영 노 하우를 더 큰 무대에서 펼쳐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BRT(간선급행버스), DRT(수요응답형 버스), MASS(통합교통서비스) 등 새로운 교통 시스템과 도 시철도를 연계한 통합 환승 체계 구축부터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공 공교통망 구축에 22년 쌓아온 도시철도 운영 노하우를 쏟아부을 것이다.

도시철도를 바다로, 시내버스와 새로운 교통수단을 강물로 삼아 상호 보완적인 교통 생태계를 이뤄간다면 광주교통공사는 ‘광주전남특별시(가칭)’의 대중교통 중추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와 지역 간의 격차 등 대 한민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혁신의 과정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미래 세대에게 새로 운 길을 열어주는 첫걸음이다.

양 사·도의 대통합이 대한민국 지방 거점 균형발전 의 또 다른 전환점이자 ‘자치분권’에 의한 새로운 풀뿌 리 민주주의 실현의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社 說

지방선거 판 혼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초미의 관심 속에 추진되고 있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 6·3 지방선거 판을 흔들 정지 이슈가 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의 행정 통합이 이뤄질 경우 6월 3일 지리 지는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를 통합해 한 명의 광역 단체장을 선출하 는데 가장 큰 변화는 현직 사·도 지사가 사퇴 없이 출마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 공식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에 사 퇴해야 하지만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관 한 ‘광주·전남특별시 설치 특별법 초안’에는 현직 단체장이 직을 그만두지 않아 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 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높은 통합 찬성 여론에 비춰 불 대 행정 통합이 신속하게 이뤄져 광주·전남특별시장 선출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당장 오늘부터 사·군·구를 순화하며 행정 통합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진행한다. 현직 단 체장이 공식적으로 주민들을 만나 행정

통합에 따른 이점을 설명하는 자리지만 반북적인 노출과 메시지 선정 효과로 자 연스럽게 현직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빈번하게 실시될 여론조사에서도 조사 대 상이 기존과 달리 통합 광역 단체장으로 확대되면서 현직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수도권과 경쟁 할 만한 메가시티를 위해서 반드시 성사 되어야 한다. 다만 행정과 선거의 경계가 흐 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관리에 이 전보다 훨씬 객관적이고 공정한 룰을 만 들어 적용해야 한다. 유권자인 시도민들 도 통합 단체장인 광주·전남특별시장에 어떤 정치인이 가장 적합한지를 행정 통 합 추진 과정과 경선 과정에서 매의 눈으 로 지켜보아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바꿀 행정 통합은 지역 정치 역사에서도 성공 적인 통합 단체장 선출이란 이정표를 남 겨야 할 것이다.

국민 법감정과 동떨어진 尹 징역 5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지난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 은 국민 법감정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 다. 법원은 8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단순히 검찰 구형의 절반 수준이지만 범행의 중대성과 위법성으로 볼 때 판결에 납득할 만한 사 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원은 적용된 혐의 대다수에 대해 유 죄를 인정하면서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5 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 해(체포방해) 혐의만 하더라도 대통령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것으로 공권력을 사법화한 중대 범죄다. 더구나 재판 과정에서 혐의 를 인정하거나 반성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검찰 구형량 의 절반을 선고했다.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를 방해하고 국무 위원에게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 심의권

을 침해한 것은 재범이 불가능한 범죄다. 오죽했으면 ‘초범이라도 죄의 경중이 있 지 어찌 이룰수 있느냐, 이게 나라냐?’고 되묻는 사람들이 많겠는가. 대다수 법조 인들조차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특검 구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항소심에서 판결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에 대한 첫 판결로 관심을 받았지만 결과는 국민들의 법감정을 담아내지 못했다. 앞 으로도 6개 재판이 순차적으로 판결을 기 다리고 있다. 나라를 거덜 내러 한 범죄자 에겐 형사소송법에서 적용하는 초범이라 는 이유는 감정 사유가 될 수 없다.

국민들은 친위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말 살하려 한 전직 대통령의 망상을 일깨우 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기대하고 있 다. 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로 답해 줘야 한다. 그것이 사법의 정의다.

無 等 鼓

고전적 명제인 “언어는 정신을 지배한 다”는 말은 모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 현이다. 모국어를 잃어버린 민족은 정체 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정신 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언어라 는 사실을 의미한다. 자국의 언어를 지키 지 못한 나라치고 일류국가로 도약하거나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끼친 사 레는 없다.

광복은 주권을 되찾았다는 의미 외에도 본질적으로 우리의 언어를 되찾았다는 뜻 을 함의한다. 대부분 일 상에서 우리말을 자유자 재로 사용하기에 ‘한글 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

여 명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프 로그램으로 조명희, 김기철 소설가를 비 롯해 김준 시인, 리상희 평론가 등 적박한 중앙아시아에서 모국어로 창작을 했던 작 가들 면면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고려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이 서울 예원문화센터에서 열린 ‘코리아인 페스티 벌 2026’에 특별 출연해 화제가 됐다. 재 외동포정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동향(同 嚮): 같은 울림’을 주제로 세계 재외동포 아티스트들이 모여 음악을 매개로 우의와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 다. 2017년 창단한 고려 인마을 어린이합창단은 독립투사 후손 4·5세 자 녀 등 26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휘자인 조정희 호남대 교수는 “‘고려 인’이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공유한 아 이들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공간”이라고 합창단 의미를 전했다. 정체성과 자부심 을 잃지 않았다는 말은 우리말을 잊지 않 았다는 것을 전제한다. 이역만리 동토의 땅에서 추위와 배고픔, 억압 속에서도 모 국어인 한글을 기억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선조들의 눈물겨운 역사를 상기해야 할 것 같다. / 박성천 문화부장 skypark@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8 사 회 부 220-0664 제 2 사 회 부 220-0680		〈대표 FAX 222-4918〉 문 화 부 220-0624 예 향 부 220-0692 여 론 매 체 부 220-0661 사 진 부 220-0693 디 지 털 부 220-0697	
		경 영 지 원 국 220-0515 (FAX 222-800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국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